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니?

(정신 분열형 성격 장애)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고 독특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 대인관계나 사회 적응이 아주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거의 없는 독특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육감이라든가 예언, 기이한 공상, 또는 근거 없는 심령 과학을 철석같이 믿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들은 사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보통과는 다르면서도 딱히 정신병적이지 않은 묘한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철학자’ 또는 ‘도사님’ 등의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불리는 별명은 대부분 괴짜 류(類), 또는 속칭 ‘돌 아이’ 류(類)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괴상한 사고(思考)로 말미암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속 신앙을 하늘처럼 신봉하여 무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도 흔히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병명이 없는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며,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이면 나아진다고도 믿는다.

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일이 없으면 그들은 정신병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한 정상도 아닌 이른바 경계선 상(境界線上)의 적응을 하며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큰 충격이 왔을 때는 일과성의 정신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개는 일정 기간 치료 후 정신병적 증상이 소실되기는 하나 그런 후에도 여전히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사고(思考)가 잔존하는 정신 분열형 성격 장애 또는 잔류형 정신 분열병 상태 이상은 되지 못 한다.

28세 된 미혼 남자가 있었다. 직장 내에서 그는 대체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자기의 소신은 없지만 남에게 악하게 구는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표정 없이 허허 실실하는 유머 감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관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료들이 그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자는 똥배가 나오지 않으면 장수하지 못 한다”는 믿음으로 애써 배를 불리는 특이한 행동을 그가 자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두들 그가 썰렁한 농담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 문제로 토론이 벌어지자 그는 매우 심각하게 “남자는 기(氣)가 아랫배로 가야만 심장병에 걸리지 않으며 오래 살 수 있다. 배가 나오는 것은 기가 아랫배로 갔다는 증거이다”라며 ‘똥배론(論)’을 강력히 주장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지 ○○○○라는 신홍 종교에 빠져들었다. 하던 일을 거의 제쳐놓고 거기에 빠져 있던 그는 동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각에도 의연하게 책상에 앉아 그 종교의 교리에만 몰두하였다.

한번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상담을 앞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똑같은 행동을 하자 같은 사무실 동료가 크게 화를 내고 그를 다그쳤다. 그러나 그때 그는 명경지수(明鏡止水)와도 같은 표정으로 “걱정하지 말고 가 보아! 일은 이미 다 끝나 있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 상담이 무산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어쨌든 그에게는 상사들로부터의 질책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는 “박해다. 그러나 곧 끝난다. 성서에도 나와 있다”라며 애써 무관심 하려고 하였다.

그의 말과 행동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다가도 금방 실소(失笑)를 자아내기도 하여 사람들의 동정과 원망을 함께 샀다. 결국 어느 날 구제 불능이라는 판단과 함께 간부 회의에서 그의 퇴출이 결정되고 말았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인근 시장과 슈퍼를 다 뒤져 5톤 트럭 가득히 양초와 소금을 사서 시골의 부모님께 부쳤다. 그는 화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어머니 다음 달에는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보내드린 것만 잘 보관하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그가 4년간 모은 봉급은 ‘빛과 소금’이 되어 고스란히 고향의 부모님께 전달되었다. 그 후로 그는 얼마간 정신병원 신세를 졌으며 십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낙향하여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다. 여전히 탄소리하면서 또 여전히 총각인 ‘중견 40대’로.